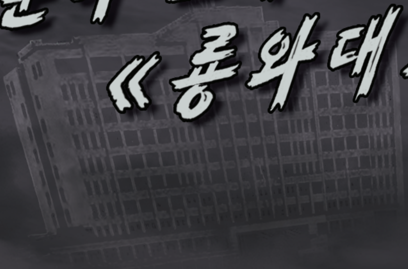
비운이 드리운 《룡와대》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윤석열역도가 《제왕적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겠다.》고 희떱게 줴치며 룡산에 《둥지》를 틀고앉은 때로부터 1년이 되여온다.

남조선항간에서 《대통령실》이라는 이름대신 《룡산의 청와대》라는 말을 줄여서 《룡와대》로 부르고있는 역도의 《둥지》주변은 물론 남조선 곳곳에서는 오늘도 《윤석열탄핵》, 《윤석열퇴진》의 함성소리가 세차게 울리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윤석열역도는 집권후 민심을 유혹하기 위해 내들었던 달콤한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파쑈적인 검찰독재로 남조선사회를 민주의 불모지로 만들었다. 또한 외세굴종정책, 《친재벌부자》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국의 천길나락에 밀어던졌다.

특히 미일과 결탁하여 벌리는 역도의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남조선은 최악의 《안보위기》에 처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윤석열역도의 사대매국과 반인민적악정, 무모한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 무지와 무능, 독선에 치를 떨면서 《대통령》자리에서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나온 남조선력사는 인민의 배척과 경멸을 받은 권력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이미 보여주었다.

민심의 저주와 배격을 받고있는 《룡와대》에 비낀 락조는 역적패당의 가련한 말로를 예고해주고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

이것이 윤석열《정권》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역도가 집권한지 한달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검사출신이다. 아이때에 야구방망이를 꽁무니에 차고 다니며 골목대장노릇이나 하던 윤석열역도는 《법권》을 휘두를수 있는 검사직업에 《매력》을 느끼였다.

그래서 사법시험에 응시하였지만 원래

머리에 든것이 없다보니 겨우 9번째만에야 합격하여 30대중반의 나이에 검사직업을 얻게 되였다.

늦게 배운 도적질이 사람잡는다고 검사가 된 윤석열은 수많은 민주개혁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용공》과 《친북》으로 몰아 감옥으로 보낸 반면에 제 족속들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직권을 리용하여 무마해치워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직무에 충실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요설로 사람들을 기만하여 나중에는 검찰총장자리에까지 게바라올라갔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집권유지수단으로 악용되던 검찰을 개혁하라는 민심의 요구가 높아지고 이전 《정권》시기 일련의 《검찰개혁조치》들이 진척되자 《대쪽》이니, 《소신》이니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갖은 훼방과 교활한 술책을 꾸며대였다. 그

려다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는 극우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에 기여들어가 한때 자기가 구속하였던 보수패당들에 대한 《사면》을 력설하면서 보수패당의 지지를 긁어모아 《대통령》선거에까지 나서게 되였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 《신적폐청산》 등을 떠들며 보수세력의 환심을 사는 한편 제놈을 《정의롭고 공정한 검사》로 광고하여 사람들을 속여넘겨 겨우 0.73%의 차이로 간신히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게 되였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검찰출신들이 권력기관들의 요직을 차지할것이라고 평하였다.

그것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정치무식쟁이고 해본것이란 검사노릇밖에 없는 윤석열이 《대통령》질을 해먹기 위해

서는 불피코 검찰나부랭이들을 써먹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보았기때문이다.

실지로 역도는 《룡와대》와 《행정부》, 권력기관들에 제놈이 검찰총장때 끼고 돌던 측근들을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룡와대》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총무비서관과 괴뢰정보원 기조실장, 《총리》 비서실장, 괴뢰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원》 원장 등 주요요직들에 검찰출신들이 줄줄이 앉았다.

윤석열역도가 검찰관계자들을 《우대》한것은 단순히 역도자신이 검사출신이기때문이 아니였다.

그것은 검찰이라는 권력기구를 전면에 내세워 제놈이 추구하는 사대매국과 파쑈, 반공화국대결정치를 무난히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속심에 따른것이였다.

극악한 독재정치, 폭압정치로 민주개

혁세력들을 비롯한 정치적반대파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것은 친미괴뢰보수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난 세기의 남조선파쑈독재자들이 괴뢰군부와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비롯한 폭압기구에 의지하여 자주, 민주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탄압하면서 폭압정치를 해온것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남조선의 독재자들은 괴뢰정보원과 《기무사》, 경찰 등 권력기관들을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써먹었다.

파쑈독재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윤석열역도는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을 악용하여 교활하게도 《법치》와 《준법》의 간판을 들고 검찰사냥개들을 권력의 요직들에 들여앉혀 과거의 독재시대로 역행하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제놈의 반역통치를 무난

히 실현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이것은 윤석열역도가 《룡와대》와 《행정부》는 물론 괴뢰군부와 경찰, 검찰,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폭압기구들에 제놈의 검찰졸개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여 《검찰공화국》을 더욱 완성해가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윤석열역도는 검사출신졸개인 한동훈이라는자를 괴뢰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데 이어 최측근인 리원석을 검찰총장에 올려앉혔다. 또한 괴뢰정보원의 《인사권》과 자금을 좌우지하는 요직에 검사출신의 하수인을 박아넣고 이전 《정권》시기 임명된자들을 모조리 내쫓는 방법으로 괴뢰정보원을 자기의 충실한 사냥개로 만들었다.

역도는 경찰 역시 자기의 손아귀에 틀어쥐기 위해 괴뢰행정안전부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국장으로 대학시절 반

독재투쟁에 나섰다가 전향하여 친구들을 밀고한자를 임명하였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라는 간판을 들고 감행하는 윤석열역도의 검찰독재통치는 과거의 모든 파쑈독재자들의 횡포를 무색케 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군사독재가 총과 칼, 무력으로 억압했다면 검찰독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거슬리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놓고 폭력을 가한다.》, 《전두환때는 석사우에 박사, 박사우에 륙사(륙군사관학교)란 말이 있었는데 윤석열때는 석사우에 박사, 박사우에 검사가 있다.》, 《검찰편중, 지인선택인사라는 비판에도 윤석열이 검찰인사를 고집하고있는것은 검찰정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이다.》고 비난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윤석열역도는 검찰독재의 칼로 민주개

혁세력은 물론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대상들을 가차없이 란도질하고있다.

윤석열역도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와 직권람용의 수사대상이 되여 탄압당하고있고 역도를 비롯한 보수패당의 막되고 추악한 짓거리를 그대로 폭로한 언론들도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언론으로 매도되여 박해를 당하고있다.

괴뢰언론 《MBC》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탄압사건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석열역도가 미국행각때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고 줴쳐댄 사실을 제일먼저 보도하였다.

이로 하여 내외의 비난의 대상이 된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한미동맹》을 훼손하였다, 《가짜뉴스》가 《정부》의 신뢰

를 떨어뜨리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취재활동에 빗장을 지르다못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수사놀음을 벌리고 보수단체들을 내몰아 규탄놀음을 벌리면서 비렬하게 놀아댔다.

《MBC》뿐이 아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저들의 검찰독재통치와 반인민적악정을 풍자만화로 비판한 고등학교학생과 미술가들까지 탄압박해하였는가 하면 언론들이 《정부》에 불리한 보도만 하고있다고 떠들면서 검찰과 《감사원》을 내세워 《방송통신위원회》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실무책임자들인 국장과 과장들을 련이어 구속하였다.

윤석열역도는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여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2022년말에 벌어진 남조선운수부문 로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불법시위》로

걸고들면서 가혹하게 탄압한것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역도는 《안전운임제》연장을 요구하는 《화물련대》소속 로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나자 그 무슨 《법과 원칙》, 《엄정대응》을 떠들며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하여 강경진압하였다.

역적패당은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일떠선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리적》과 《불법》의 감투를 씌워 폭압을 가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저들의 검찰독재정치에 저촉되는 인물들과 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반면에 일가족속들과 측근들, 극우보수세력들의 추악한 짓거리에 대해서는 묵인비호하거나 외면하고있다.

그리하여 윤석열역도의 부산저축은행사건수사무마, 불법판사사찰의혹 등 170여

가지의 부정부패의혹들과 역도의 녀편네인 김건희의 론문표절의혹과 주식사기를 비롯한 부패범죄혐의들, 장모의 《의료법》위반 및 사기혐의 등 역도와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수사가 무마되였고 각종 뢰물행위와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갔던 리명박역도를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사면 등으로 석방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사적리익을 챙기고 내편은 무죄로, 네편은 유죄로 만드는것이 윤석열식검찰독재》, 《검찰에 의한 정치적, 자의적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자신과 가족만 례외가 되는 <선택적법과 원칙>》,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검찰에서 정의의 녀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고 성토하고있다.

윤석열역도의 검찰독재통치로 오늘날 남조선은 민주와 정의, 진보, 초보적인

인권마저 여지없이 말살되는 민주의 무덤, 인권페허지대로 더욱 전락되였다.

폭제는 반항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파쑈독재광들이였던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 로태우, 리명박, 박근혜역도가 민심의 저주와 규탄, 배격을 받고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것이 이것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오늘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각계층은 역도의 검찰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분투해나서고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인사들은 검찰독재가 몰아온 남조선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역도의 폭정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지식인들도 《남조선의 력사는 군부독재로부터 자본독재에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자본독재에서 검찰독재로 이행하고있

다.》고 하면서 검찰독재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고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사회교제망에 기반한 수많은 인터네트언론들도 반윤석열투쟁에 합세해나서고있다. 이러한 속에 괴뢰헌법재판소까지 이전《정권》시기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 내용으로 채택된 《검수완박법》을 무효화해달라는 검찰패거리들의 소송을 기각시켜 역도의 검찰독재에 제동을 걸었다.

《권력은 민심이라는 바다우에 떠있는 쪽배와 같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역도가 력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검찰독재로 남조선인민들을 짓밟고 추악한 명줄을 부지하려고 발악하지만 민심의 거세찬 파도속에 《검찰공화국》이 침몰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혈세는 《룡와대》로,
민생은 나락으로

윤석열역도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제놈은 광화문주변의 《정부》종합청사로 사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에 당선되자 광화문이 아니라 룡산에 있는 《국방부》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변덕을 부렸다.

결국 남조선언론들이 평한것처럼 역도가 《대통령》이 되여 제일먼저 《국방부를 선제타격》하는 바람에 괴뢰국방부패거리들만 부랴부랴 이사짐을 싸고 여기저기로 결방살이이사를 하느라 혼쫄이

났다.

문제는 어째서 윤석열역도가 청와대에 들어가는것을 그처럼 꺼려했고 또 골라골라 룡산에 《둥지》를 틀었겠는가 하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2012년 《무정스님》이라는 점쟁이의 중매로 김건희와 만난 후 녀편네가 알선해주는 여러 무당들의 사주팔자풀이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왔다.

검찰총장을 해먹던 지난 2020년에는 김건희가 소개한 《건진법사》라는 점쟁이의 《조언》을 듣고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을 남조선에 급속히 확산시킨 《신천지교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지시켰고 2021년에는 점쟁이 《건진법사》와 《천공스승》이 시키는대로 검찰총장직을 자진사퇴한 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다. 또한 선거기간에는 《건진법사》를 제놈

의 《선거대책본부》의 고문으로 끌어들이고 그자가 하라는대로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를 새기고 TV토론회에 뻐젓이 나가는 역겨운 짓거리를 거리낌없이 하여 만사람의 조소와 비난을 받았다.

이런자이기에 《청와대》가 풍수지리적으로 북악산이 풍기는 《암운》과 지심에서 솟구치는 불길한 기운으로 《살기》가 뻗쳤기때문에 력대 《대통령》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암살당하였고 임기를 간신히 마친 경우에도 감옥귀신이 되였으니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쟁이들과 녀편네의 꼬드김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천공스승》이 《룡산에 가면 운수가 트인다.》고 하자 룡산의 괴뢰국방부청사에 《대통령실》을 옮긴것이다.

역도가 《대통령》관저도 처음에는 괴뢰륙군참모총장의 《공관》을 리용하겠다

고 밝혔지만 《천공스승》이 그곳은 《살기가 뻗친 곳》이라고 하자 그 주변의 괴뢰외교부 장관 《공관》을 빼앗아 저들의 관저로 만들었다는것은 이제는 공개된 비밀이다.

윤석열역도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온전한 제 집도 없이 최악의 생활고에 신음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지만 점쟁이들이 지정해준 《룡와대》와 관저를 새로 꾸리는데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탕진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대통령실>을 룡산으로 옮기는데 496억원을 책정하였지만 관저개건보수비용을 비롯하여 모두 300억원이 더 들어가는 등 총비용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대통령실>이전발표때 반영되지 않았던 추가예산규모가 새로 파악된것만도 34억여원에 달한다.》, 《<대통령>관저를 륙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만 수십억원에 달한다.》, 《경호관련시설을 포함한 구조물과 설비의 이전 및 새로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과 <대통령실>이전에 따른 기존기관들의 이전비용까지 합하면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총 1조원을 넘을수 있다.》고 폭로하였다.

윤석열역도와 녀편네 김건희는 《룡와대》와 관저개조공사도 저들의 측근들과 아첨군들에게 맡겨 막대한 리윤을 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

관저에 이사가자마자 역도는 제놈의 측근들을 그칠새없이 불러들여 산해진미를 차려놓고 먹자판을 벌리고있고 녀편네 김건희도 심복들과 《국민의 힘》의 떨거지들, 아첨군들을 불러들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흥청망청하고있다. 그리고는 저들의 먹자판놀음을 《식사정치》로

포장해서 광고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어느한 고전소설에는 《금동이의 맑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초불눈물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라는 시가 있다.

윤석열역도는 그 옛날의 탐관오리들도 경악할 정도로 인민들의 고혈과 피땀을 짜내여 저들의 사치와 향락에 탕진하는 부정부패의 왕초이다.

이런자가 《대통령》이랍시고 거들먹거리고있으니 남조선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 될수밖에 없는것이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후 남조선경제는 파국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고물가, 고환률, 고금리의 《3고현상》과 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3저현

상》이 걷잡을수 없이 확대되고있고 수출부진과 수입증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무역적자는 2023년 1월에 이르러 력대 최고인 127억US$를 기록하였다.

《경제의 기둥》이라고 하는 대기업들도 영업리익이 90%이상 줄어들면서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있다.

이러한 속에 령세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뛰여오르는 원자재값과 임대료부담, 판매부진에 시달리다가 줄줄이 페업하고있다.

경제와 함께 민생도 헤여나올수 없는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역도가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후 은행리자률은 걷잡을수 없이 뛰여올랐으며 이것은 채무지불능력이 딸리는 남조선의 절대다수 서민계층에게 있어서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우에 돌을 얹어놓는 격으로 되였다.

소비자물가와 전기료금, 가스료금, 지하철도와 뻐스료금 역시 그끝을 알수 없이 상승하여 각계층속에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

결국 막다른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윤석열역도와 부정의한 사회를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윤석열역도는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반면에 특권족속위주의 정치, 부자정치로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역도는 집권후 《기업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하여 악덕기업들에 대한 처벌조치들을 대기업들에 유리하게 뜯어고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기업법인세》 등 각종 세금관련법조항들을 재벌들과 특권족속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부자감

세》조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그 무슨 《특별사면》놀음을 벌려놓고 박근혜역도집권시기 《국정롱단사건》에 련루되였던 재벌기업회장들과 횡령, 상습도박을 일삼은 부패한 경제인들의 범죄행위를 면죄해주기까지 하였다.

남조선을 민생의 무덤으로 만든 윤석열역적패당은 세인을 경악케 하는 반인민적악정으로 더욱 악명을 떨치고있다.

역적패당은 《탄력적인 로동시간도입》이라고 하면서 기업주들이 로동시간을 더 늘일수 있게 하는 한편 상업부문 로동자들의 《의무휴식제》와 화물운송부문의 《안전운임제》를 아예 없애치우려 하고있다.

또한 《로조부패척결》의 간판을 내걸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운동단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정부>

에 의해 서민들은 희망도 미래도 사라져버렸다.》,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있는 윤석열<정부>를 타도하자.》고 웨치면서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일떠서고있다.

더욱 깊숙이 쓴 예속과 굴종의 멍에

윤석열역도는 사대매국으로 악명을 떨친 력대 위정자들도 무색케 할 희세의 매국역적이다.

윤석열역도는 중학교때부터 다른 공부는 죽도록 싫어하면서도 유독 《미국식자유민주주의》, 《미국식시장경제》만은 배우겠다고 하면서 련관도서들을 골동품처럼 끼고 다니였다. 그리고 1974년 미국대

통령의 서울행각때는 김포비행장까지 성조기를 들고 달려가 《환영》하였다.

이자가 얼마나 숭미에 쩔었는가 하는것은 우리 말보다 영어에 더 애착을 느끼고 사람들앞에서 영어를 섞은 잡탕말을 곧잘 외우며 우쭐해하였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이런 친미사대분자이기에 《대통령》선거때에는 《한미포괄적전략동맹》을 회복하겠다고 줴치면서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전 미국부대통령 등 미행정부의 전, 현직 고위관리들을 찾아다니며 《눈도장》을 찍기 위해 별의별 추태를 다 부렸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한미안보동맹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굳건한 한미관계를 재건하겠다.》고 뇌까리며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남조선강점미군사령부를 찾아가 친미주구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볼썽사납게 놀아댔다.

그런가 하면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라는것을 워싱톤에 보내여 《한미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수 있게 해줄것을 미국상전에 구걸했고 지난 2022년 5월 미국대통령의 서울행각때에는 미국국가가 연주되자 상전의 본을 따라 성조기를 향해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는 쓸개빠진짓도 서슴지 않아 내외를 아연실색케 하였다.

지어 남조선을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 북침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조작 70년을 《력사적인 70년》이라고 찬미하며 괴뢰국회에서의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통과, 《기념마크》제작, 《기념도서》발행, 간담회, 토론회 같은 숭미광대극들도 련이어 벌려놓았다.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리승만괴뢰역

도가 꾸며낸 《호상방위조약》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제침략군무력을 무기한 배치하고 미군이 괴뢰군을 철저히 장악통제하면서 조선반도유사시 련합군사작전으로 대응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침략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전쟁문서로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의 상징이며 식민지예속의 멍에이다.

세계에는 나라들사이에 맺은 수많은 협정과 조약들이 존재하지만 침략군이 남의 나라에 제 집처럼 틀고앉아 군통수권을 완전히 거머쥐고 식민지고용군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대포밥으로 써먹도록 만든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과 같은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은 이 날강도적인 《조약》을 코에 걸고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면서 남조선땅을 핵전쟁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락시켰으며 끊임없는 북침핵전쟁불장난소

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왔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책동은 오늘 더욱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국은 《호상방위조약》을 걸고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과 군사장비들, 세계도처에서 무차별적인 살륙과 테로로 악명을 떨친 살인악당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북침핵전쟁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지배와 예속의 동아줄인 《한미동맹》을 명줄처럼 여기고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인민들로부터 짜낸 막대한 혈세까지 바쳐가면서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 침략자, 강점자와 함께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이 겪

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의 남조선강점을 극구 찬미하면서 《호상방위조약》조작 70년을 《기념》하는 해괴한 짓거리를 공공연히 일삼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체내에 어떻게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매국배족책동이 계속되는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참담한 불행과 고통은 가셔질수 없고 온 민족은 분렬의 비극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의 남조선강점 70여년이 보여주는 결론이다.

윤석열역도는 또한 미국이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조작한 협의체인 《인디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쿼드》에도 가담하려 하고있다.

이에 대해 괴뢰정치 및 경제전문가들과 언론들도 미국의 자기중심적인 대외정책

과 리익실현에 남조선이 청맹과니처럼 리용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전의 사환군, 너절한 하수인노릇만 하게 될것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조선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 윤석열《정부》가 미국의 렬차에 자신을 더 단단히 묶는것은 《정치적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친미굴종에 매달리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적패당의 뒤통수를 치며 더욱 횡포하게 놀아대고있다.

윤석열역도가 지난 2022년 5월 미국대통령의 남조선행각때 재벌들을 추동하여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으나 상전은 《인플레감축법》을 제정하여 미국시장에서 괴뢰산 전기자동차들이 밀려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2023년 4월에는 미국이 《룡와대》를

상시적으로 도청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였지만 윤석열역도는 미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찍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여 식민지노예의 가련한 운명이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각인시켰다.

윤석열역도의 사대매국적본태는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인 섬나라것들에게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팔아먹고있는데서 더욱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력대 괴뢰통치배들치고 친일매국을 추구하지 않은자가 없었지만 윤석열역도의 친일사대매국책동은 너무도 추악하고 비렬한 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일본인들까지 비난하고있다.

《대통령》감투를 쓰기 전부터 《한미일군사동맹도 가능하며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조선반도에 들어올수 있다.》는 망발을 줴쳐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던 역도는 당선후에는 친일역적들로 《한일정

책협의대표단》을 무어 섬나라에 파견하여 관계개선을 구걸하였다. 또한 2022년 8월 그 무슨 《경축사》라는데서 《일본은 이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는 쓸개빠진 나발을 거리낌없이 뇌까린데 이어 2023년 3월 1일 또다시 일제의 조선침략을 합리화하는 망언을 늘어놓아 남조선 각계에서 《일제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 《리완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상최악의 3.1절기념사로 <삼일절>이 <친일절>이 되였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게 하였다.

역도의 친일사대매국책동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청산을 외면하고 섬나라것들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적극 추종하는데서 절정을 이루고있다.

《대통령》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일본에 관계개선을 구걸하던 역도는 2023년

3월에는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뒤전에 밀어놓고 저들이 일본전범기업들을 대신하여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주는 친일굴종적인 배상방안이라는것을 정식 발표하였다. 또한 그 대가로 얼마후 일본을 행각하여서는 일본전범기업들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줴쳤는가 하면 과거사문제는 이미 해결되였다는 식으로 못을 박으면서 오히려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성실히 리행하라고 내리먹이고 《독도령유권》문제까지 꺼내들며 오만하게 놀아대는 섬나라것들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였다.

역도는 조선인강제징용시설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방해하지 말며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출에 대해 상관하지 말라는 일본것들의 행위도 그대로 수수방관하였다.

지어 윤석열역도는 일본것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적대응조치들과 국방력강화를 《핵 및 미싸일위협》으로 걸고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등 미일남조선 그리고 남조선일본사이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천하역적행위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윤석열<정권>이 력사의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도를 넘는 친일매국행위에 피가 꺼꾸로 솟는다.》, 《윤석열이야말로 현대판 리완용이다.》고 단죄규탄하면서 윤석열역도퇴진투쟁에 궐기하고있다.

이처럼 윤석열역도는 집권 1년도 안되는 기간에 남조선을 미국과 일본의 2중식민지로 더욱 전락시키였다.

미국과 일본이 씌워준 예속과 굴종의

멍에를 벗어던질 대신 더욱 깊숙이 쓰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야말로 천하의 인간추물, 희세의 사대매국노들이다.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남조선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반미, 반일, 반윤석열투쟁의 불길은 머지않아 윤석열역적패당이 겪게 될 비참한 말로를 예고해준다.

자멸을 재촉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

윤석열역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이 뼈속까지 들어찬 특등대결광신자이다.

집권전부터 《주적은 북》이라는 글을 인터네트사회교제망에 뻐젓이 올려놓고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고 줴쳐대며 대결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윤석열역도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후에는 더욱 악랄하게 반공화국대결악담질을 해대고있다.

《룡와대》에 틀고앉자마자 《북인민군과 북정권은 적》이라는 대결용어를 쪼아박은 《군정신교육교재》를 괴뢰군의 각 군종, 병종부대들에 배포한 역도는

《2022 국방백서》에도 같은 내용을 집어넣고 괴뢰군은 물론 사회전반에 반공화국적대의식을 고취하고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부호전광들을 모아놓고 《주적관》을 바로가지라, 북의 《도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비린청을 돋구며 허세성객기를 부렸다.

반공화국적대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도는 미국, 일본과 함께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각종 북침전쟁연습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집권 첫해에 미국상전과 북침전쟁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벌리기로 모의한데 따라 역도는 《F－35A》스텔스전투기, 전략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한 미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여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쌍매훈련》, 《비질런트 스

톰》, 《을지 프리덤 쉴드》, 련합해상훈련을 비롯한 각종 북침전쟁연습들을 그칠새없이 벌리였다.

뿐만아니라 《환태평양합동군사연습》과 《퍼시픽 드라곤》, 《포춘 가드 22》, 《퍼시픽 뱅가드》훈련 등 미국의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명목의 다국적련합훈련에도 적극 참가하여 대결광기를 부리였다.

2023년에 들어와서도 역적패당은 미전략폭격기 《B－1B》, 《B－52H》, 스텔스전투기 《F－22》를 비롯한 미전략자산들을 뻔질나게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특히 3월에 들어와 미국과 역적패당의 전쟁광기는 극히 무모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역적패당은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

에 대한 전면전쟁을 가상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쉴드》를 11일간이나 주야로 쉬임없이 강행하였다.

그리고 《프리덤 쉴드》를 전후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련합도하작전, 련합공중강습 및 통합기동훈련, 련합군수물자지원훈련, 련합과학화전투훈련 등 형형색색의 화약내질은 전쟁연습들을 벌려놓았다.

특히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여러해동안 중지하였던 사상최대의 련합상륙훈련인 《쌍룡》을 복원하여 미친듯이 벌렸다.

《쌍룡》련합상륙훈련은 《평양점령》을 노린것으로서 윤석열역도는 미국과 야합하여 《F-35B》스텔스전투기 20대를 탑재하는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으로 통칭되는 미해군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호를 비롯한 수십척의 함정, 수십대의 각종 전투기, 1만명이상의 대병력을 이 훈련에 끌어들이였다.

이러한 속에 미해군의 핵동력항공모함 《니미쯔》호, 이지스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항공모함타격집단까지 끌어들여 제주도 남쪽부근에서 련합해상훈련을 벌린데 이어 미일남조선련합해상훈련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제반 사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정세격화의 주범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윤석열역도는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도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역도는 선임자들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반공화국인권모략기구인 《북인권재단》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있으며 《북인권국제협력대사》직에 악질대결분자를 임명하고 터무니없는 《북인권보고서》

라는것을 조작공포하였다.

또한 《북인권정책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는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북인권범죄》날조에 열을 올리고있다.

사실 괴뢰역적패당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것은 남조선이야말로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페허지대이기때문이다.

더우기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후 남조선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권리와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짓밟히는 인간생지옥으로 더욱 전락되였다.

날로 더욱 가중되는 부익부, 빈익빈현상, 거리에 차넘치는 실업자홍수, 심각한 사회적문제인 녀성차별, 로인학대, 아동학대행위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기와 협잡, 살인과 강탈, 마약범죄와 인신매매

를 비롯한 범죄행위들, 세계 1위의 자살률, 바로 이것이 남조선의 실상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여 일떠선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투쟁도 《불법》, 《리적》으로 몰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제 집안을 이처럼 암흑사회, 인간생지옥으로 만든자들이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인 공화국을 걸고드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저들의 어리석은 대결망동으로 하여 제스스로 공화국의 주적, 민족의 원쑤로 되였다.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 일심단결의 강국, 절대적힘을 비축한 핵보유국을 어째보려고 날뛰는 무지막지한 전쟁대결광이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는 식민지노복, 미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허재비, 미국의 대포밥에 불과한 인간추물들이 상전도 그 가공할 위력에 혼비백산하여 벌벌 떨고있는 군사강국과 엇서보려 하는것이야말로 썩은 닭알로 바위를 깨보려는것과 같은 미욱하고 가소로운 짓거리이다.

무지무모에 객기와 만용이 더해지면 재앙을 낳는다고 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역도의 호전적인 객기를 보면서 화약고안에서 불장난하는 철부지를 보는 느낌이다, 저런 《안보초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나겠다고 걱정하였는데 바로 그 불안과 우려가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반윤석열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그 어떤 침략세력이든 단매에 박살낼 무적의 힘을 지닌 상대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덤벼들려는것은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파는 추태,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자멸망동이다.

자연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수 없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공화국과 맞서싸우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제 죽을줄도 모르고 불속에 뛰여드는 부나비와 조금도 다를바없다.

반공화국대결망동으로 자기의 운명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 비참한 종말을 고할 날은 멀지 않았다.

《룡와대》에 울리는 장송곡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윤석열역도를 민심의 심판대에 올려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자주가 아니라 친미친일매국을, 민주화가 아니라 파쑈독재부활을,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경제파국을, 평화와 안전보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민생이 아니라 제 족속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윤석열역도에게 남조선민심이 등을 돌리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초불승리전환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정부》로 인한 경제위기, 민생위기, 평화위기, 민주주의파괴로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 윤석열퇴진을 위

한 《항쟁의 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형식의 반윤석열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특히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민주로총》,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을 비롯한 각계층 운동단체들은 《주적》은 북이 아니라 조선반도평화의 파괴로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야당정치인들과 진보세력들은 물론 모든 주민들을 《적》으로 대하는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역도의 반인민적악정과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반대하는 대규모총파업과 초불대행진, 긴급기자회견, 집회, 성명발표, 시위, 현수막게시 등 반《정부》, 반전평화통일운동을 매일같이 과감히 벌리고있다.

반윤석열투쟁들에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은 물론 가정주부들과 로인들, 장애자, 대학생 지어 중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계층들이 참가하여 《윤

석열<정권>과의 본격전투를 전개하자.》, 《주민들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자.》, 《우리가 주인이다.》, 《초불이 이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웨치고있다.

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극도의 경멸과 배척기운은 반《정부》시위현장에서 역적패당을 과녁으로 한 활쏘기놀이와 주먹타격놀이,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부적》붙이기놀이를 벌리고 역도를 야유조소하는 풍자만화들을 만들어 전시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2022년 10월초 남조선의 어느한 고등학교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만화가 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고 국제만화축전에 전시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만화에는 윤석열역도의 상통을 한 증기기관차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사람들

을 뒤쫓는 속에 기관사자리에 앉아 호들갑을 떠는 역도의 녀편네와 객차창문마다에 칼을 빼들고 몸통을 내민 검사들이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한편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모든것이 거꾸로 되여간다는 의미에서 역도의 성인 《윤》을 거꾸로 뒤집어쓴 《공》이라는 글자 아닌 글자로 엮은 《공정과 상식》과 같은 표현들도 인터네트에 올라 민심의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암살》, 《윤석열을 수류탄테로하실분 구합》, 《윤석열자택에 테로간다.》, 《(<대통령실>이 있는)룡산에 메돼지(윤석열) 잡으러 간다. 총알 6발이 있다.》,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목을 베여 참수》 등의 글들도 인터네트들에 련이어 올라 역적패당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반윤석열투쟁은 해외지역에서도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련대》를 비롯한 해외동포운동단체들은 해외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들을 발표하고 있다.

민족의 지향,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인민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

윤석열역도가 녀편네와 점쟁이들의 지시대로 《액운》을 피해보겠다고 《청와대》를 버리고 《룡와대》에 《둥지》를 틀었지만 지은 죄에 따른 민심의 천벌은 피할수 없고 가련하고 불쌍한 역도의 《팔자》는 절대로 고칠수 없다.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 반인민적악정과 파쑈독재를 일삼으며 인민앞에, 민족앞에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천하역적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머지않아 비

참한 종말을 고할것이다.

《룡와대》에 그날이 가까와오고있다는 것을 알리듯 까마귀들의 까욱소리가 장송곡처럼 스산하게 울리고있다.

비운이 드리운 《룡와대》

집 필 김명철
편 성 김영실
장 정 채대성 교 정 주설미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4월 27일
발 행 주체112(2023)년 4월 30일

ㄱ—1592ㄷ

